

# “어르신, 공동체 지켜온 선배 시민”

###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전북형 AIP 돌봄 공약 발표 총 10만개 규모 일자리 체계 구축... 역량 활용형 확대 전북형 손주 돌봄 수당 도입·그랑헤드립센터 운영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북형 AIP(Aging In Place) 어르신 돌봄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 일자리 10만 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발표한 공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과 마을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손주 돌봄 수당 도입 △경로당 기능 혁신 △의료 접근성 강화 △생활안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를 지켜온 선배 시민으로 예우하겠다”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지갑을 두껍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형 특화 일자리 1만 개를 추가로 만들어 총 10만 개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단순 환경정비 중심이 아닌 돌봄·안전·생활 지원 분야에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역량 활용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월 20시간 월 20만 원 수준의 맞춤형 일자리에 연간 24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은퇴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이어가며 안정적 생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전북형 손주 돌봄 수당' 도입도 공약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내용이다. 경로당을 지역 공동체 돌봄 거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경로당 5일 무상급식과 주 2회 반찬 지원을 추진하고, 회합·총무 활동비 지원 확대를 통해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고 설명했다. 또 전북형 도농복합 실버타운 조성 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웃과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계획도 밝혔다. 의료 돌봄 분야에서는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확대, 찾아가는 전통찜질터 수리 서비스 도입, 경로당 비대면 진료·채방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형광등·문고리·수도꼭지 교체 등 생활 수리와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전북 그랑헤드립센터' 운영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초고령사회 대응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전북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 원팀, 전북 원팀의 힘으로 어르신이 존중받고 생활 걱정을 덜 수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정청래 당대표의 사과는 영혼 없다”

### 김관영 도지사 후보 선대위 “민주당 공증 바로 세울 것”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정청래 대표의 최근 사과 발언과 관련해 “영혼 없는 사과”라고 비판하며 “전북도민은 투표로 민주당의 공증과 상식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정상적인 지도부였다면 제명이 아닌 당원권 정지를 통해 경선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도 가능했다”며 “여론조사 1위를 달린 현직 도지사를 소명 절차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제명한 것이 도민 반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사랑하는 전북도민의 가치는 투표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정 대표가 진정으로 도민에게 사과할 뜻이 있다면 더 이상 선거를 과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또한 선대위는 정 대표가 방송에서 대리비 사건을 언급하며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전국 선거를 집어삼켰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문제의 핵심은 징계 자체가 아니라 절차와 수위”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정 대표의 사과는 심판이 불공정·편파 경선으로 경기 결과를 뒤바꿔 놓고도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지 않은 채 박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취재반

## “이원택 도지사 후보 중심으로 결집해야”

### 역대 도의회 의장단 “전북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 흔들려... 전북 발전 위해 힘 실어달라”

역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이 28일 “전북이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린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한 결집을 호소했다.



역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이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택 도지사 후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역대 전북도의회 의장단 9명을 대표한 송성환 전 제11대 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 제12대 전반기 의장 오영근 전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김희수 현 제12대 후반기 부의장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전북 발전을 위해 민주당 도지사 후보에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북의 소외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규정해 첫 대통령”이라며 “중앙부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북 인재들이 포진해 있고 집권여당의 강한 힘이 있는 지금이 전북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고 밝혔다. 의장단은 특히 “현대차의 9조 원 전북 투자 현실화와 새만금 개발, 삼성·SK하이닉스 등 200조 원 규모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정·청과 강력한 원팀이 가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책임자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라

고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4050 세대의 삶을 든든히 하고 어르신 세대를 세심히 보살피며 전북 재도약을 이룰 사람 역시 이원택 후보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전북 발전을 위해 민주당과 이원택 후보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명의 의장단 참석자 외에도 김영배 전 제10대 전반기 의장, 황현 전 제10대 후반기 의장, 양용보 전 제11대 전반기 의장, 최찬욱 전 제11대 후반기 의장, 이정민 전 제12대 전반기 부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취재반



## “KTX 혁신 산단 조성”

### 양정무 국힘 도지사 후보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는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정치역 중심 혁신산단 조성 계획을 핵심으로 한 자신의 3호 정책 공약과 함께 최근 불거진 후보 간 연대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전주·익산·남원·김제·정읍 등 KTX 정치역 인근에 첨단 혁신산단 단지를 조성해 전북을 하나의 미래 신산업벨트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을 추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부지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최근 TV 토론회 이후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연대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연대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이원택 후보와의 연대설에 대해 “정치적 도의와 이념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 1%도 고려할 적 없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현실화”

### 민주 박지훈 국회의원 후보, 세부 공약 발표

박지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국산·김제·부안)는 28일 대표 공약인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현실화’를 위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현대차 투자가 실제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입법,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산



업용지 전환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단지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정수소 생산·저장·활용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 △신항만 배후부지 국가재정 투입 △인입철도 예산 확보 △남북축도로 예타 통과 추진 등 물류 SOC 구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전략 거점”이라며 “민주당 원팀 승리로 새만금 발전과 전북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AI 시민주권 전주... 시민 모두가 크리에이터”

### 민주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인공지능 기반 도시 전환 공약 발표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28일 “AI 시민주권 전주, 시민 모두가 크리에이터 도시”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 기반 도시 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혁명을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하는 시민 행복으로 완성하겠다”며 “전주 세계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시민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우선 시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형 AI’를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디지털 비서를 통해 행정을 효율하고 정책 형성과 지역 의제 논의에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의 경험과 데이터를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전주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수의 구조를 만들고, 그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퍼지컬AI 특별구역’을 지정해 자율주행·드론·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 시민 권리 보장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조약’과 ‘시민주권 현장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취재반

##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당 질서 혼드는 행위, 소신으로 포장 말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0여 명은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일부 민주당 동료의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같은 어수룩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인 장영국 도의원이 낭독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서 당의 질서를 ‘소신’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당의 결정과 경선 결과를 공개적으로 당의 질서를 혼드는 행위를 ‘소신’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책임으로 운영되는 공적 정치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식적으로 선출된 후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반당 행위를 하면서 정계의 책임을 퇴장”이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당원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오히려 반감과 의구심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민주적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을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전북도민과 당원들은 갈등과 피해자 정치가 아니라 책임과 성과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을 향해 “해당 행위자들에게 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소신 발언에서 박정규 의원은 “자신 역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지만, 이후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위해 현명한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경선 승리 후보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당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오늘 남원서 사전투표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이 5월 29일 오전 9시 남원시 동중동 사전투표소에서 남원시의원(비)선거구 박형규 후보와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한창민 대표는 지난 5월 14일 박형규 후보 출마 기자회견 참석을 시작으로 5월 21일 선거 출정식에 천호선 전 참여정부 대변인과 함께 참석해 남원 유권자들을 상대로 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 대표가 사전투표를 남원에서 박형규 후보와 함께하기로 한 것도 남원에 모든 당력을 쏟고 있다는 점을 남원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박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호소하기 위함이다. /특별취재반

## 한국복지신문 ‘이원택 46%·김관영 38%’

### 26~27일 실시 한국갤럽 전북자치도지사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복지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복지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이틀간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원택 후보는 46%, 김관영 후보는 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 ±3.1%포인트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선대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사이 민주당’ 민심이 본격적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별취재반

이원택 후보 선대위는 “남은 기간 네거티브와 갈라치기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여준의 여론조사사이트 24~25일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조사 방법: 통신 3사 제공 안심번호 통한 무작위 전화면접, 응답률: 21.2%,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45.0%,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38.1%,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1.6%, 진보당 백승재 후보 1.2%, 무소속 김성수 후보 0.5% 순으로 나타나 김관영 후보가 오차범위 밖 6.9%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별취재반